Full Gospel Tokyo Church Newsletter

FGTC NEWS

55호

2023년 삿포로신학교 입학식예배

2023년 4월11일(화), 삿포로 프리미어호텔 컨벤션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이자 삿포로신학교 학교장인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삿포로신학교 입학식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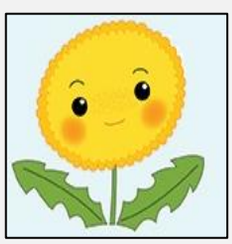
P2 : 삿포로성전 성령대망회 & 삿포로신학교 입학식예배
P3 : 이영훈 목사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P3 : 김장환 목사 축복성회
P4 : 담임목사 컬럼 “믿음의 저축”
P4 : DCEM세계선교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

공 지

삿포로신학교 제3기생 (2024년 4월 입학생) 모집개시

일본선교의 최전선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일본인 또는 일본거주외국인도 소수 모집합니다. 굿피플 선교회의 장학금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apporobible.college) ⇒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 Open



5/5(축일,어린이날)12:30~ 제1회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이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오픈합니다. 참가대상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참가희망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 오전 11:00부터는 축복성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민들레 어린이식당 · 문화교실, 하얀민들레 야외식당에서는 봉사자 모집 중입니다.

순복음동경교회 가족신문 Web 사이트 개설

순복음동경교회 활동을 보다 확장시켜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순복음가족신문 Web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한국어/일본어사이트)
Web사이트에서 교회사역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Web사이트를 선교활동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복음동경교회 가족신문 웹사이트 (https://fgtc.news) ⇒

삿포로신학교 입학식예배 2023년 4월 11일

이영훈 목사 성령대망회 4. 10 (월)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8-20 —

4월10일(월),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인도하는 성령대망회가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8-2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힘쓰신 일본 일천만 구령을 이제 우리가 이어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일본 복음화에 대한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최용우 목사 새벽기도회 4. 11 (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 중략-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요한복음 14:16-21 —

4월11일(화), 최용우 목사(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 담임목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요한복음 14:16-21)'이라는 제목으로 새벽기도회 설교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 입학식예배 4. 11 (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 사도행전 20:24 —

삿포로신학교 학교장인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사람'(사도행전 20:24)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충만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고 전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 이사장인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2025년부터 1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삿포로신학교가 일본 열도를 성령의 불바다로 이루는 영적 진원지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신학생들을 향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 (삿포로신학교 학교장)

조민제 회장 (국민일보 회장)

최용우 목사 (삿포로신학교 명예고문)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 침례교회)

그 후,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축사, 최용우 목사(삿포로신학교 명예고문)와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박희경 홋카이도선교회장이 삿포로신학교 개교과정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현근 목사(풀가스펠바이블컬리지 학감)가 환영사를 전하고 입학식 예배를 끝마쳤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순복음동경교회와 삿포로성전 성도를 비롯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사와 한국의 순복음교회 지교회목사와 장로, 순복음선교연합회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입학생들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복음화을 위해 선교사로 쓰임받을 삿포로신학생 1, 2기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영훈 목사 축복성회 4. 12 (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 요한삼서 1:2 —

4월 12일(수), 순복음동경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축복성회는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 5층성전까지 가득 차 대성전 계단에도 앉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원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삼중축복의 은혜'(요한삼서 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복음신앙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질병과 사망이라는 삼중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삼중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고 삼중축복에 대한 말씀을 알기 쉽게 강해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라고 전하며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던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에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 들어서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장환 목사 축복성회 3. 21 (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중략-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사도행전 2 :41-47 —

3월21일(화)11시, 순복음동경교회는 김장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故조용기 목사의 오랜 친구인 김장환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로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 한국YFC명예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1억명이 넘는 성도가 등록된 침례교 세계연맹의 총회장(BWA)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설교 전, 한국에서 같이 오신 분들 중 두 분을 소개하였고, 이 두 분은 순복음동경교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찬양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김장환 목사는 '이상적인 교회'(사도행전 2:41-47)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4가지로 규정하였고, 이번 성회에서는 주로 "①성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①성장하는 교회(Growing Church)
②선교하는 교회(Going Church)
③빛나는 교회(Glowing ChurCh)
④눈물이 있는 교회(Groaning Church)

김장환 목사

먼저 김장환 목사는 故조용기 목사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최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故조용기 목사가 하루 5시간 기도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증거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였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다양한 예화를 들며 기도와 말씀, 사랑나눔의 중요성을 전하였고 순복음동경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해갈 비전과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 믿음의 저축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빌립보서 4:19 -

저금한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믿음에도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저축하면 될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19~21)라 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저축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평소 믿음의 저축을 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다비다(도르가)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과 은혜를 베푼 여자여서 욥바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슬픔에 잠겨 다락에 시체를 안치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는 다락에서 모두 다 내보낸 후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났습니다. 평소 쌓아놓은 믿음의 저축이 그녀를 되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가이샤라지방 이달리야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계시를 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평소 쌓은 믿음의 저축으로 일어난 기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을 저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일성수는 매우 중요한 저축입니다.
2. 천국에 보물, 물질을 쌓는 것도 큰 저축입니다.
3. 기도가 강력하고 확실한 저축인 것은 당연합니다.
4. 구제(베품)도 훌륭한 저축입니다.
5.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도 저축의 큰 힘이 됩니다.
6. 성도를 대접하는 것을 큰 이율의 저축이라 해도 무관하겠지요.
7.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야말로 저축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교회에서 행한 믿음의 저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들은 베드로의 선교를 지지하기 위해 기도의 저축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교여행에 나가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헌금을 통해 선교를 지지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믿음의 저축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멋진 포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본문말씀)

믿음의 저축에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으며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CEM세계선교 싱가포르성회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중략 -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ㅡ 히브리서 11:1-4 ㅡ

3월 25, 26일에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DCEM은 콩히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싱가포르 최대교회로 알려진 시티하베스트처치를 방문해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목사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주 안에서 위대한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꿈은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회에서는 DCEM가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며 조용기 목사가 생전에 남긴 공적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제2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콩히 목사
(시티하베스트처치 담임목사)